

주요 곡물 선물가격, 허리케인 피해로 미국의 곡물 수출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하락

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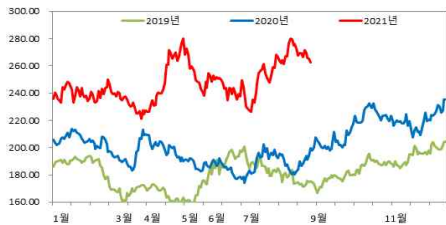
구분	기준일 ('21.09.01)	전일대비	전월평균 ('21.08)	2020 평균
밀	262.44	▼1.1%	269	202
옥수수	205.80	▼2.2%	218	143
대두	469.48	▼1.1%	490	350

단위 : US\$/톤



주1.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(적색연질밀; SRW), 옥수수, 대두의 근월물 (밀 : 12월, 옥수수 : 12월, 대두 : 11월물) 정산가격임.

밀 선물시장 시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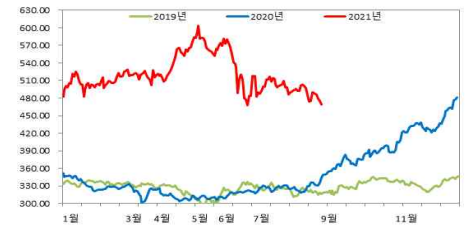
시카고선물거래소 밀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1.1% 하락했다. 밀 선물가격은 허리케인 피해가 미국 걸프 지역의 곡물 수출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하여 기술매도와 옥수수 및 대두의 파급 약세로 하락 마감했다. 거래자들은 목요일 미 농무부의 주간 수출 판매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, 8월 26일에 마감된 주간 미국 밀 수출량을 20만~45만 톤으로 예상하고 있다.

옥수수 선물시장 시황



시카고선물거래소 옥수수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2.2% 하락했다. 옥수수 선물가격은 미국 걸프 수출터미널의 허리케인 피해로 인한 수출 지연에 대한 우려로 하락했다. 글로벌 곡물 거래업체인 Cargill Inc CARG.U.은 이번 주 초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유일한 곡물 수출 시설 Reserve에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후 루이지애나주 Westwego의 곡물 수출터미널 또한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.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최근 일주일간 옥수수 기반에탄올 생산량이 일일 90만 5천 배럴로 감소했으며 비축량은 2,111만 배럴로 감소했다고 밝혔다. 거래자들은 목요일 미 농무부의 주간 수출 판매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, 8월 26일에 마감된 주간 미국 옥수수 수출량을 75만~170만 톤으로 보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대두 선물시장 시황



시카고선물거래소 대두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1.1% 하락했다. 대두 선물가격은 미국 걸프 수출터미널의 허리케인 피해로 인한 수출 지연에 대한 우려로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하락했다. 거래자들은 두 달 전 인도 딜러들이 선적한 1만 5천 톤을 포함해 25만 톤의 대두박을 수입하기로 계약했다고 전했다. 거래자들은 목요일 미 농무부의 주간 수출 판매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, 8월 26일에 마감된 주간 미국 대두 수출량을 62만 5천~152만 5천 톤(구작물 및 신작물을 합친 것)으로 예상하고 있다.

관련동향

- CIF 바지선 운임 가치 하락과 관련하여 걸프 곡물 및 대두 프리미엄이 대부분 낮았음.
- 1일 국제유가는 OPEC+ 감산 완화계획 유지, 미 원유재고 감소, 허리케인에 따른 미 정제시설 가동 중단 등으로 보합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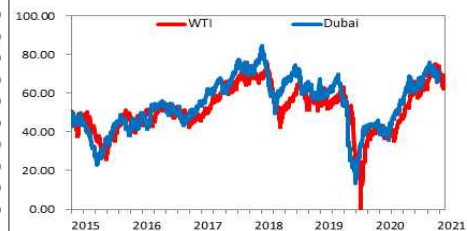
곡물 수출가격 (FOB)



환율



국제유가



곡물수출가격 (FOB)	구분	기준일	전일대비	구분	기준일	전일대비		
	밀	282	-		환율	원/달러	1,162.8	▼0.1%
	옥수수	252	▼1.9%			달러/유로	1.1810	▲0.1%
	대두	526	▼1.1%		국제유가	WTI	68.59	▲0.1%
쌀	398	▲0.3%	Dubai	70.43		▼1.1%		

1) 밀(US SRW Gulf), 옥수수(US 3YC Gulf), 대두(US Gulf), 쌀(Thailand 100% Grande B), WTI(근월물), Dubai(현물)

2) 기준일: '21.08.31(수출가격), '21.09.01(환율), '21.09.01(국제유가)이며 자료출처(국제곡물이사회, 한국은행, 한국석유공사)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.